

“약수터는 왜 방사능 검사 안하나”

광주 14곳 불안… 이용 주민 항의 ‘빗발’

전문인력·장비 없어 검출작업조차 불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여파로 광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검출되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 물질의 지하수 유입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지만, 등산로의 약수나 주택과 지하수의 경우 안전검사 대상 성분에 방사능 물질이 제외돼 있는 터이다.

12일 광주시와 각 구청,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관리 대상 광주지역 약수터는 등구 1곳, 남

구 1곳, 광산구 2곳, 무등산 10곳 등 모두 14곳에 달한다.

자치단체들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2개월마다 이들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가 지난 2월 9일과 4월 5일에 수질 검사를 한 것을 비롯, 남구는 1월 18일과 3월 23일, 광산구는 2월 10일, 무등산관리사무소는 2월 23일에 약수터 4곳에 대한 정기 수질 검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각 자체 민원실 등에는 ‘방사능 비’ 우려가 제기된 4월 초부터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3 전국 학력평가

12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연합학력평가에서 광주 남구 대광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고교 3학년이 대상인 이번 시험은 수능 모의고사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원점수 및 등급이 기록된 개인별 성적표가 제공된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광주 대학진학지원단 가동 시작

15일 올 첫 입시설명회… 진학부장들 합숙 워크숍도

광주 대학진학지원단이 올해 11월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 예비수험생·학부모들의 입시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진학부장들로 구성된 광주 대학진학

지원단은 오는 15일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을 초청해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2012학년도 대입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입시설명회다.

행사에서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언·수·외국어 등 영역별 만점자 1% 이상 유지 방침, EBS 교재·강의 70% 연계 출제 등 올해 출제경향에 맞춘 공부 방법과 영역별 준비 요령을 소개한다.

서울대학교 입학관리처 담당자들

도 오는 5월 13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호남권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 진학부장들도 이번 달 22일~23일 나주 증흥골드스파에서 서울대학교 입시관계자, 진학전문가를 초청해 ‘2012학년도 대입지도를 위한 진학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에서는 오는 11월 10일 수능을 치른 뒤 12월 13일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고, 15일에는 정시모집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문의 062-380-457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문화 교육’

새 명칭 공모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3~19일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결혼 이주민 등이 긍증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름’이나 ‘차별’의 의미로 종종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모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는 2006년 9389명에서 2007년 1만4654명, 2008년 2만180명, 2009년 2만615명, 2010년 3만1788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가작 5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00-6524.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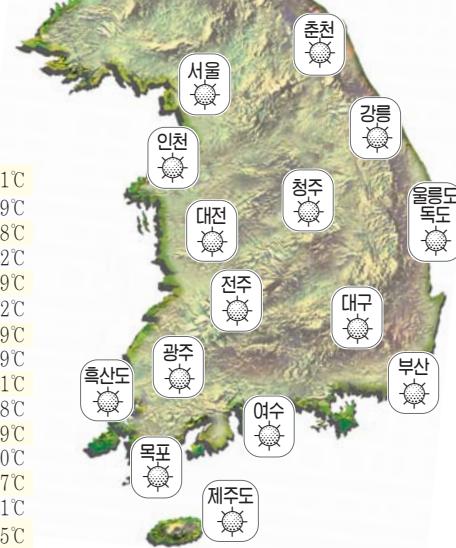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뜰 06시 04분 해진 19시 03분 달倨 13시 35분 달倨 02시 31분

건조한 봄 기운

여수·광양·순천·구례·곡성·보성·고흥·진도에 건조주의보 발효

광주	맑음	4/21°C
목포	맑음	4/19°C
여수	맑음	7/18°C
나주	맑음	0/22°C
완도	맑음	4/19°C
구례	맑음	0/22°C
해남	맑음	0/19°C
장흥	맑음	0/19°C
순천	맑음	5/21°C
영광	맑음	1/18°C
전주	맑음	2/19°C
군산	맑음	3/20°C
남원	맑음	3/17°C
흑산도	맑음	0/21°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단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0.5~0.5m 남비단 남서~서 0.5~1.0m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단 남~남서 0.5~0.5m 남비단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0.5~0.5m 남비단 남서~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9:31 21:56 05:00 11:25 여수 10:20 17:34 17:34 23: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6/20	12/17	10/20	8/19	8/16	7/16

전남 전문계고

10곳 이상 준다

오는 2014년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가 10곳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현재 63곳인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3곳을 포함 모두 48곳으로 감축하는 등 15곳을 줄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취업역량강화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간판을 내리게 되는 특성화고는 일반계로 전환된다.

특성화고 폐지 기준은 낮은 취업률과 신입생 지원율, 소규모 학교 등이 기준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된다. 도 교육청은 체제 개편과 함께 이를 특성화고에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과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 등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운천호수 밤 빛꽃 구경하세요”

20일까지 30분 씩

음악분수 가동한다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

광주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해왔으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으며, 빛꽃이 만개하는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평일 1회(오후 8시30분~9시), 주말 2회(오후 8시30분~9시, 9시30분~10시) 각 30분간씩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로 최고 40m에 이르는 물줄기를 뿜어낸다.